

1 세계 경제 및 우리나라 경제 동향

□ 2013년 박근혜정부의 향후 재정운용방향 (‘13.5.24)

- 「단기」 적극적 재정역할 + 「중장기」 재정건전성 및 재정위험 관리
- ‘국민’, ‘협업’, ‘현장’ 중심으로 재정운용 틀 혁신 → 공약 뒷받침
- 예산, 세제, 국유재산 등 가용 재정수단 조합 및 제도개선

○ 세출구조의 획기적 전환 : 「하드웨어」 → 「소프트웨어」, 「物」 → 「人」

- 경제 : 선도·창조·융합형 R&D 확대, 중소기업 지원 효율화, 사회간접자본투자·농업 투자 효율화
- 사회복지 : 의무지출 재검토, 전달체계 개혁·효율화, 중앙과 지방간 분담체계 확립
- 행정·국방부문 : 정부 3.0 구현 지원, 적정 수준 방위력 확보 및 민군협력 강화

○ 세출기반 확충 : 직접적 증세 없는 세입확충

- 비과세 감면 정비 : 일몰 도래시 원칙적 종료, 꼭 필요한 경우 엄격하게 검토 후 재설계·도입
- 중소기업, 서민·중산층에 유의
- 지하경제 양성화 : FIU 금융정보 등 활용, 국민 공감대 형성 부문(역외 탈세 등)에 집중
- 세외수입 확대 : 국유재산 활용 각종 특례 정비, 유상사용 원칙(169개 법률 사용료 감면, 장기 사용허가 등 195개 특례)

○ 국고 및 국유재산 관리 선진화 : 시장과 연계 강화

- 국고자금 관리강화 : 국고금 조달·운용규모·시기 적정화 등
- 국고채 시장 안정적 관리 및 선진화 : 외국인 투자 모니터링, 국채시장 여건을 반영한 국고채 운용제도 개선, 국채법 개정
-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: 부처별 국유재산 시스템 연계 및 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 구축, 국유재산 매각 및 활용 제고

○ 공공기관 운영관리 개혁 : 협업강화·국민 신뢰 회복·효율

- 협업 활성화 :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 개방 (→새로운 비즈니스 창출), 공공기관·중소기업 상생·협업, 공공기관 간 협업 구축
- 국민신뢰 회복 : 부채관리 강화, 중장기 관점의 경영평가, 인사 투명성 제고, 일자리 창출 지원 등
- 기능점검 : 기능점검 제도화로 조직·인력 운영 등 경영 효율화

○ 재정제도 선진화 : 자율과 책임의 조화, 맞춤형 재정

- 총액배분 자율편성 : 재정총량 관리, 부처 자율화+책임성 강화
- 세입·세출 연계
- 기능점검 : 기능점검 제도화로 조직·인력 운영 등 경영 효율화
- 조세지출·재정사업간 연계강화 및 최적 Policy-Mix 강구
- 조세지출 타당성점검 및 성과관리 → 제도개선
- 조세지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→ 부처사업 성과 정보+ 과세관청 비과세·감면 정보 통합관리

- 중장기 시각, 국가재정운용계획 : 장기-중기-단기 연계
 - 성과평가관리 및 재정위험관리 강화
 - 재정사업 사전·사후 평가 시 협업 강화, 평가 결과의 환류 강화
 - 잠재적·우발적 재정위험요인 관리를 위한 지표 마련
 - 재정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공개 확대
 - 공기업까지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 산출 → 재정 투명성 제고
- ※ 전경련 회원사 임원협의회(5.24) 『박근혜 정부의 2013년 재정 및 세제정책 방향』 발표자료 인용

□ 박근혜 정부 140개 국정과제('13.5.28)

○ 박근혜 정부의 4대 국정기조, 140개 국정과제



○ 주요 국정과제 추진계획

- 농축산업의 미래성장사업화

· 농식품의 6차 산업화

- * 향토산업 육성, 농촌 관광·체험 산업화 등 생산·유통·가공·외식·관광 등이 연계되는 6차 산업 활성화를 통해 농촌지역의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

· 농식품의 첨단산업화

- * 글로벌 유망종자 개발, 로열티 절감 추진 등 종자산업 육성, 농식품 R&D 지속 확대, 글로벌 첨단식품산업 육성 등으로 농식품을 최첨단 산업으로 육성

·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

- * 효율적인 가축분뇨 처리, 무허가 축사 개선, 시설현대화 지원 확대, 사료가격 안정, 가축질병 대응체계 강화로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

· 산림부국 실현

- * 숲가꾸기, 목재산업 육성, 산림복지 공간 및 도시 숲 확충, 산림탄소배출권 확보 등으로 산림가치 극대화

-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

· 농수협 중심의 유통계열화로 유통단계 축소

- * 농산물은 농협 산지유통센터 확충 및 5대 권역별 '농산물 도매 물류센터' 개설 등으로 농협 비중을 대폭 확대
- * 축산물은 협동조합형 패커 육성, 농협 계통 소매 점포 대폭 확충
- * 수산물은 수협중앙회를 판매조직(도매 중심)으로 육성

- 생협, 직거래 등 신유통경로를 확산하여 농산물 직거래 비중 확대
 - * 꾸러미 사업 및 소비자-생산자 주도형 직매장 설립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이버거래소 직거래 확대
 - * (가칭) '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' 제정 추진
- 도매시장 운영효율화
 - * 시설현대화, 정가수의매매 확대 등을 통한 도매시장 거래 및 운영 효율화
- **안정적 식량수급체계 구축**
 - **위기상황별 대응모델 구축**
 - * 국제곡물 가격 전망모형 구축으로 식량안보 모니터링 강화 및 조기경보 시스템 등을 통해 식량위기 사전대응 시스템 마련
 - **우량농지 확보 및 농지 활용률 제고**
 - *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 조정, 농지매입비축 사업 등을 통해 우량 농지를 최대한 보전
 - * 겨울철 유향 논에 밀, 보리, 사료작물 재배 시 직불금을 지원하고 밭직불제의 지목과 품목 제한을 단계적으로 해소
 - **곡물 수급불안 대응**
 - * 밀, 콩, 옥수수 등 주요 곡물의 자주율 목표 설정, 공공비축 대상을 현행 쌀에서 밀, 콩으로 확대
 - * 해외 곡물유통망을 활용, 사료용 밀·콩·옥수수 현지비축 추진
 - **해외에서 적가적량 공급**
 - * 해외 농업개발 투자 촉진, 국가곡물조달 시스템 구축을 통해 해외 곡물확보 및 도입 역량 강화
 - **품종개발 및 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**
 - * 기후변화 대응 품종개발 밀·콩·잡곡 생산성 향상 및 품질고급화 기술 개발 및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추진

- **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**
 - **인도적 문제해결 적극 추진**
 - *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·납북자 문제 실질적 해결, 영유아·임산부 등 취약계층 대상 순수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지속 추진
 - **남북간 대화채널 개설 및 기존 합의정신 실천**
 - * 남북 당국간 대화 재개 및 상시 대화채널 구축 추진, 기존 합의 내용 중 우선 추진 가능분야 점검, 남북간 합의 이행 문화 정착
 - **남북간 호혜적 교류협력 활성화**
 - *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및 국제화,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제협력사업 추진, 다각적인 사회문화 교류 내실화
 - **정치·군사적 신뢰구축 및 교류협력의 상호 보완적 발전**
 - * 무력도발 중단과 상호 체제 인정 등 기본적인 조치부터 실천, 교류 협력의 활성화와 균형되게 정치·군사분야에서의 추가적 신뢰 구축 조치 추진
 - **남북간 신뢰와 비핵화 진전에 따라 「비전 코리아 프로젝트」 추진**
 - * 북한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경제공동체 건설의 기반을 마련하고 북한 지역에 국제 투자 유치 지원
 - * 서울·평양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문제는 여건을 감안 검토
- => **남북간 호혜적 교류 협력이 활성화 될 경우 무기질 비료 지원 방안을 대정부 건의 추진**
 - * 국무총리 비서실(5.28) 『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계획 및 관리·평가 방안』 보도자료 인용

□ **최근 국내외 경제동향(‘13.6)**

< **국외 경제동향** >

- (미국) 4월 실물지표 혼조 지속, 1분기 내수 호조에 성장률 상승
 - 지난 4월중 생산 감소와 소비 증가 등 실물 지표들이 전달에 이어 부문간 엇갈린 실적을 보인 가운데 노동지표와 체감지표, 선행지수 등이 대체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실물경기의 견조한 추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
 - 산업생산은 4월 IT생산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등 내구재 생산의 급감(-0.6%) 여파로 3개월 만에 다시 감소세를 보인 반면, 소매판매는 의류와 자동차 등 전 품목의 고른 증가에 힘입어 2개월 만에 증가세
 -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은 소비와 투자 등 내수 호조에도 불구하고 연초 시퀘스터 여파에 따른 정부지출 급감 여파로 시장 기대치를 하회
- (일본) 3월 실물지표 혼조, 1분기 내수 호조에 전기비 1.0% 성장
 - 3월 생산 및 수주 확대와 소비 반락 등 내수 지표들이 혼조를 보인 반면, 무역수지는 수출 증가와 수입 둔화로 적자 규모가 축소
 - 올 1분기중 생산과 수주, 소비 등 각종 내수 지표들이 동반 호조를 보이면서 경제성장률은 전기비 1.0%(연환산 4.1%) 기록, 당초 발표한 잠정치(연 환산 3.5%) 상회
- (중국) 4월 생산·소비 소폭 확대, 실물경기 약세의 장기화 우려
 - 지난 4월중 생산과 소비, 수출 증가세가 전달에 비해 소폭 확대된 반면, 투자 증가세는 전달에 이어 2개월 연속 둔화 지속
 - 내수 부양을 위한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인프라

구축에도 불구하고 실물경기의 약세가 장기화 되면서 중국 성장 부진에 대한 우려와 대내 구조 개혁의 필요성 대두

- (유로권) 3월 실물지표 개선, 1분기 성장률 전기비 -0.2%로 반등
 - 3월 역내 생산 확대 및 소비 감소 둔화와 함께 무역흑자 규모가 확대되면서 1분기 전체 실적도 전분기보다 호전
 - 1분기 재정위기국들의 경기 침체 완화와 독일의 플러스 성장 전환에 힘입어 역내 성장률이 소폭 반등

< **국내 경제동향** >

- **실물 경제**
 - 실물경기 : 4월 산업생산은 증가,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감소
 - 1/4분기 실질GDP(잠정) : 전기대비 0.8%, 전년동기대비 1.5% 성장
 - 소비자물가 : 5월 전월대비 변동없이 전년 동월대비 1.0% 상승
 - 실업률 : 4월 계절조정 실업률 3.2%
- **국내금융**
 - 기업자금 및 가계신용 : 4월 은행의 기업 대출 큰 폭 증가
 - 금리 및 환율: 5월말(5.24~5.31) 금리 및 원/달러 환율 상승
- **산업별 동향**
 - 4월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비 1.8% 증가, 전월비 0.7% 증가
 - 서비스업 생산: 전년동월비 2.6% 증가, 전월비 0.2% 증가
- **고용**
 - 취업자 수 : 4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34.5만명(1.4%) 증가

○ 수출입

- 수출입 : 5월 무역수지, 수출 증가에 힘입어 60억 달러로 대폭 증가
- IT제품과 석유화학은 호조, 철강·조선은 감소세 지속

⇒ 민간소비의 부진은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 위기 당시에는 일시적인 불확실성 확대, 2011년 중에는 교역조건 악화에 의한 소득 충격, 최근에는 부동산시장 침체 등 자산 충격에 기인한 것이며 향후 민간소비는 불확실성 축소 및 교역조건 안정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가운데 부동산시장 침체 완화와 최근 주택 가격 하락세가 둔화되면서 자산에 의한 부정적인 효과는 점차 축소될 것으로 판단

※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 『KIET 경제산업 동향』 (‘13.6) 자료 인용

□ 최근 우리나라 경제동향(‘13.6)

○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안정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·부동산·건설투자 등에 힘입어 광공업·서비스업 생산이 개선되고 있으나, 소비·설비 투자 흐름은 견조(堅調)하지 않은 모습

- 4월중 고용시장은 전월에 비해 취업자 증가폭이 개선 (전년동월대비 24.9→34.5만명) 되었고 고용률·실업률 등 고용지표도 소폭 개선
- 5월중 소비자물가는 농산물·석유류 가격 등이 하락하면서 1%대 안정세를 지속 (전년동월대비 1.2→1.0%)
- 4월중 광공업생산은 기타운송장비·영상음향통신 등이 증가하면서 전월대비 1.8% 증가하고, 서비스업생산은 부동산임대·과학기술업 등이 증가하면서 전월대비 0.2% 증가

- 4월중 소매판매는 내구재 판매는 증가했으나, 준내구재와 비내구재 판매가 감소하면서 전월 대비 0.5% 감소
- 4월중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투자가 감소하면서 전월대비 4.0% 감소하고, 건설투자는 건축 및 토목공사 호조로 전월대비 9.4% 증가
- 5월중 수출은 철강·선박 및 대일본 수출 부진 등에도 불구하고, IT품목과 대중국 수출 호조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3.2% 증가하였고, 수출입차도 흑자세 지속 (60.3억불 흑자)
- 4월중 경기동행지수(순환변동치)는 전월대비 0.2p 상승, 경기선행지수(순환변동치)는 전월 대비 0.1p 상승
- 5월중 국내 금융시장은 글로벌 증시강세 및 외국인 매수세 유입 등으로 주가가 상승하였고, 환율은 미국 경제지표 호조,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에 따른 달러강세 등으로 상승
- 5월중 주택시장은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확대(전월대비 0.2→0.3%)되고 전세가격은 전월에 비해 상승폭으로 축소 (전월대비 0.7→0.4%)

○ 유럽경제 회복지연·주요국 양적완화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있는 가운데 수출·건설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, 소비·설비투자 감소 등으로 저성장세 지속가능성 상존

- 대내외 경제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국내외 시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대응 노력을 지속
- 일자리 창출·생활물가 안정 등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하면서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노력 강화

※ 기획재정부 『최근 경제동향』 (‘13.6) 자료 인용

□ **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 종합대책 발표('13.5.3)**

○ **기본방향 및 추진전략**

- **기본방향** : 농업경영비 절감, 농자재 산업 육성을 통한 농업과 농자재산업의 동반성장

- **목표**

- 농자재 사용량 절감 및 공동이용으로 경영비 절감
- 농자재 유통구조개선·담합방지로 구입가격 안정
- 농자재 R&D 확대, 수출산업화로 산업기반 강화

- **추진전략 및 세부추진과제**

- 농자재 사용 효율화 : 농기계 공동이용 활성화, 비료·농약 사용량 절감, 시설에너지 비용 절감
- 농자재 산업 지원 : R&D 지원 확대, 해외 진출 지원, 농자재 수입대체
- 농자재 유통구조 선진화 : 유통구조 개선, 공정거래 확립, 불량자재 유통방지
- 지원체계 정비 : 기초 통계 구축, 전담 조직 신설

○ **주요내용**

- 농자재 비용 증가에 따른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고, 농자재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'농자재 종합대책' 추진

· **농기계 공동이용 활성화**

: 농기계임대사업소, 농기계은행, 맞춤형 농작업 대행서비스 등을 확대하고 지역 간 농기계 공동이용을 활성화하여 농가의 농기계 구입비용과 일손부담을 경감

* 농기계임대사업소/농기계은행 확대 : ('12)250개소/692개소→('16)400/('17)800

· **비료, 농약, 에너지 사용량 절감**

: 친환경 유기질비료 확대, 작물생육에 기초한 비료·농약 정밀처방, 신재생에너지·에너지 절감시설 확대

· **농자재 유통구조 개선**

: 권역별 농자재유통센터, 시·군별 농자재 전문스토어 등을 설립하여 복잡한 농자재 유통구조를 단순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

* 농자재 전문 스토어에 작물생육·비료·농약 처방 등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를 배치하여 농작물 생육관련 상담·처방·구입 등 일괄 서비스 제공

· **담합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,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, 집단소송제 등 도입**

· **농자재 산업지원**

: 수출지원, 고효율·친환경·수출전략형 농자재 개발

* 농자재 R&D예산확대 :

('12) 636억원→('17)1,000

* 수입대체를 위한 신물질농약, 친환경 비료 등 개발지원('13~'17, 500억원)

* 농기계 수출 촉진을 위한 중고 농기계 종합유통지원센터(천안)를 설립('13~'14)

=> **담합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, 징벌적손해배상 제도, 집단소송제도 도입 시 농자재 업체와 공동대응 방안 모색**

※ 농림축산식품부 『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 산업 종합대책』 ('13.5.3) 보도자료 인용

□ **엔화 환율 하락에 따른 농식품 수출 영향과 과제(13.5.27)**

○ **최근 엔화 환율 하락 영향으로 수출 신장세에 제동**

- 2013년 1~4월 누적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.0% 증가에 그침

○ **엔저 상황 하에서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방법**

- 엔저 대응 대책(농림축산식품부, 5.9 발표)의 철저한 이행은 물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
- 일본 수출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한시적 수출물류비 지원 품목을 확대하고, 지원기간도 일본의 소비 성수기까지 확대
- 일본 수출은 대부분 해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운회사와 정부 간 교섭으로 운임 할인을 추진
- 수출물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환변동 보험과 함께 수출 농식품 가격안정보험(혹은 기금)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
- 장기적 관점에서 수출시장 다변화 노력 강화로 엔저 리스크를 분산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해외 시장 개척지원사업의 확대가 요구됨

※ 『KREI 농정포커스』(13.5.27) 자료 인용

- 반면 복합비료는 맞춤형비료 포함 8%가 증가, 이는 시판복비 생산량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맞춤형비료에 대한 정부지원 중단으로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맞춤형 비료대신 원예용비료의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임

· 생산실적 : '12년 3월 80만톤

→ '13년 3월 75(전년대비 6% ↓)

- 국내 1/4분기 **출하실적**은 맞춤형비료 보 조금 중단으로 시판 원예용 복합비료가 증가하였지만 단비 소비량 감소로 4% 하락

· 국내 대농민 판매실적 : '12년 3월 49만톤

→ '13년 3월 47(전년대비 4% ↓)

- **수출실적**은 인도의 수입량 감소로 인해 중국·러시아의 저가 물량이 동남아 지역에 공급됨으로 인해 수출물량 감소

· 수출실적 : '12년 3월 34만톤

→ '13년 3월 34(전년대비 -)

※ 한국비료공업협회 『2013년 3월 비료제품 생산 및 출하실적』 자료 인용

2 **국내의 비료관련 동향**

○ **국내 비료 1/4분기 생산출하 실적 및 수출 동향**

- 국내 1/4분기 **생산실적**은 전년 동분기 대비 6% 하락, 이는 황산암모늄의 수출 급감으로 인해 생산량이 40% 감소, 인산단비 및 황산칼륨도 각각 66%, 34% 감소하여 전체 단비 생산량이 전년 동분기 대비 42% 감소

3 **국내의 곡물 수급동향 및 전망**

○ **품목별 곡물 수급동향과 전망**

- 2012/13년 6월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은 5월에 비해 소폭 상승, 2011/12년과 비교해 7.7% 증가, 재고량도 2012/13년 6월은 5월에 비해 소폭 감소되었으나 2011/12년과 비교해 7.9% 증가

- 향후 국제 곡물시장은 세계 곡물의 양호한 수급 여건 및 원자재·석유·세계 경제 등 안정적인 대외여건 등으로 안정세를 지속할 전망이다, 기후여건 및 세계 경제 변화 등의 불확실성으로 대외시장 여건에 따라 상승 가능

- '12/'13년 생산전망

(단위 : 백만톤)

구 분	2011/12 (A)	2012/13 6월 (B)	증 감 (%) (B/A)
곡물전체	2,317.6	2,425.0	7.7
- 밀	697.2	695.9	6.1
- 콩	239.5	285.3	6.6
- 옥수수	883.0	962.6	12.5
- 쌀	465.8	479.2	1.9

- '12/'13년 재고량추이

(단위 : 백만톤)

구 분	2011/12 (A)	2012/13 6월 (B)	증 감 (%) (B/A)
곡물전체	470.0	473.4	7.9
- 밀	199.5	181.2	0.8
- 콩	54.8	73.7	20.4
- 옥수수	132.3	151.8	22.1
- 쌀	104.8	108.6	2.7

○ 국제 곡물 가격동향

- 대두 : ('11) US\$485/톤→('12) 537
→('13.6월)561
- 옥수수 : ('11) US\$267/톤→('12) 272
→('13.6월)258

- 밀 : ('11) US\$298/톤→('12) 287
→('13.6월)269

- 쌀

- 중립종 : ('11) US\$833/톤→('12) 728
→('13.6월)715
- 장립종 : ('11) US\$553/톤→('12) 567
→('13.6월)518

※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『2013년 6월 국제 곡물 시장동향』 ('13.6) 자료 인용

4 무기질비료 바로 알기

□ “무기질비료 인식전환을 위한 세미나”와 관련 이상은(한경대) 교수의 「무기질비료에 대한 올바른 인식」 주제발표 내용 요약

○ 무기질비료산업의 문제점

- 국제적 여건 : 원자재를 전량 수입의존 (100%)하며,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
- 국내적 여건 : 정부는 무기질비료 사용을 감축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무기질비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함

○ 무기질비료에 대한 인식의 재정립 필요성 대두

- 무기질비료는 농약과 병기하여 나쁜 물질로 오인받거나 토양산성화의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유기질비료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임
- => 무기질비료는 식량안보의 필수재이며 무기질비료와 유기질비료의 고유역할과 보완적 성격을 이해하여 개념 정립의 필요성을 인식하여야 함

○ 무기질비료에 대한 오해

- 친환경농어업육성법 육성계획
- 합성농약, 무기질비료 및 항생제·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 방안
- 토양산성화
- 탄산생성과 유기산 생성 및 부식물질의 합성작용 등은 미생물에 의한 유기물질의 분해 과정이 원인
- 우리나라에서 사용 중인 질소와 인산 및 칼리비료는 토양산성화와 무관
- 농진청의 50년간 동일포장 시험에서 무기질비료에 의한 산성화의 증거를 찾지 못함
- 기후변화와 무기질비료
- 무기질비료는 원자재 전량 수입의존
- 기후변화정부간위원회(IPCC) 가이드라인 경계설정 부분의 국가 영역부문 정의에서 예외사항 중 하나로 “원자재 및 원유 수출국은 온실가스 발생 분을 부담하게 되어있음”
- 비료 원자재의 이산화탄소 발생 분은 수출국에 전가

○ 무기질비료의 인식전환

- 무기질비료는 식량안보의 필수재
- 무기질비료와 축분 퇴비를 최적량으로 시비한 경우 무기질비료를 시비하였을 때 생산물의 수량이 높음
- 무기질비료와 부산물비료(유기물질)의 상호 보완성
- 무기질비료와 부산물비료는 토양 내에서 각기 고유의 역할을 가지면서 상호 보완적
- * 무기질비료는 식물에 양분을 직접 공급하여 왕성한 생육과 수확량을 보장

* 부산물비료는 토양미생물이 부식을 생성하여 토양구조를 개선

○ 결론

- 무기질비료의 인식 전환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임
- 무기질비료는 토양을 산성화 시키지 않음
- 무기질비료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발생면에서 유기물질보다 유리함
- 무기질비료는 보건·위생적으로 무해함
- 무기질비료와 유기질비료는 각기 고유 역할을 가지면서 상호 보완적임
- 무기질비료는 식량안보의 필수재임

5 각 회원사 홍보사항 및 신제품 소개

○ 남해화학(주), 칼슘유황비료 (한국농어민신문, 4월 1일자 기사)



국내 토양에 부족한 성분인 칼슘 23%와 유황 13%가 함유돼 토양개량에 도움

○ 동부팜한농(주) 항공살포 전용비료 ‘헬리퍼트’ (자체 홍보)



무인헬기 살포로 노동력 및 비용이 절감되며 100% 고품질 수용성 비료로 노즐막힘 현상이 없으며 비료효과를 오래 지속하는 특수제가 첨가됨

○ (주)조 비, 완효성비료 ‘단한번NS’
(한국농자재신문, 5월 17일자 기사)



벼 생육 단계에 맞춰 양분이 공급 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벼가 균일하고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음

○ KG케미칼(주), 한마지기
(자체 홍보)



확실한 노동력 절감, 한마지기에 한포로OK, 놀라운 수확량 증대

○ (주)풍 농, 고농도 웃거름 비료 한포로NK
(자체 홍보)



수도 및 과수, 원예용 고농도 웃거름으로써 기계 살포가 편리하며 시비 후 효과가 빨라 작물의 수량 증대 및 품질 향상을 보장

○ (주)협 화, 땅심명가
(자체 홍보)



기능성물질인 TPA를 함유하여 작물에 알맞은 영양공급과 발육촉진 효과를 발휘하는 고품질 비료

6 협회 활동사항 소개

□ “무기질비료 산업발전과 인식전환을 위한 세미나” 개최 및 결과보고서 발간

○ 무기질비료 산업발전과 인식전환을 위한 세미나(4.12)



- 일시 : 2013. 4. 12(금), 14:00~17:00
- 장소 : 한국농어민신문사 회의실
- 협회(회장 강성국)는 무기질비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필요성을 인식하여 무기질 비료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4월 12일(금) 한국농어민신문사(대표이사 윤주이) 회의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였음
- 발표내용 :
 - 제1주제발표 “무기질비료에 대한 올바른 인식”을 통해 무기질비료가 식량자급률 향상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농자재이며 무기질 비료와 유기질비료는 각기 고유 역할을 가지면서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음을 설명
 - 제2주제발표 “북한 농업 실태와 비료 수급”을 통해 북한의 식량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무기질비료를 지원할 필요성과 그 논리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

· 제3주제발표 “무기질비료 5개년 계획”을 통해 식량자급률 달성을 위해 무기질비료 사용량 조절 등 무기질비료 산업 활성화 방안 제시

- 토론자 : 현해남 교수(좌장), 박윤식 서기관, 장대수 과장, 김명로 보좌관, 김정규 교수, 박상희 실장, 모갑석 부장, 이동렬 이사

○ 세미나 결과보고서 발간·배포(5.6)

- 총 500부를 발간하여, 정부부처(41부), 국회의원, 지역농협, 농민관련신문, 농민 및 소비자단체 등(73부), 시·군청(112부), 농업기술센터(145부), 회원사(80부)에 배포함

□ 제11회 농산업포럼 참석(5.23)



- 일시 : 2013. 5. 23(목), 13:00~18:00
- 장소 : The-K서울호텔 2층 가야금 B홀
- 주최·주관 : 한국농어민신문
- 참석자 : 비료업계 등 농산업계 대표, 정부기관 및 학계 관계자 등 200여명

○ 무기질비료업계 대표로 토론에 참석한 협회 김문갑 전무는 농자재산업이 실질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조정책에 기대기보다 자생력을 기르기 위하여 무기질비료 구입자금 융자(년 1%)를 할 수 있도록 무기질비료 가격안정기금법 제정(안)을 제안하였으며 맞춤형비료 입찰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도록하고 정부에서도 화학비료란 명칭을 무기질비료로 변경하여 사용할 것을 요구함

□ 회원사 체육대회 개최(5.31)



- 일시 : 2013. 5. 31(금), 10:00~15:00
- 장소 : 매봉산
- 참석인원 : 20명
- 체육행사내용 : 매봉산 등산 및 오찬
- 체력단련을 통해 건강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한편 무기질비료 생산업체간 유대를 강화시키고 각 회원사 비료·원료 담당자들의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함

□ 한농연과 간담회 개최(6.3)



- 일시 : 2013. 6. 3(월), 11:30~13:00
- 장소 : 한농연 6층 회의실
- 참석자 : 한농연 관계자 등 12명
- 내용 : 협회(회장 강성국)는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(회장 김준봉)의 관계자를 통해 농민에게 무기질비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전달하고 무기질비료산업 정책추진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6월 3일(월) 한농연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음
- 현해남 교수 “무기질비료에 대한 올바른 인식” 설명
- 한농연 정책실장(박상희)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농민의 균형 있는 비료 소비가 필요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무기질비료 가격 안정기금법(안) 제정 등 무기질비료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 지원 의지를 표명함
- 협회 김문갑 전무이사는 농민단체·소비자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협회와 농민단체가 함께 상생하는 정책 개발 및 공조 협조를 요청함

□ 한국농어민신문 창간 33주년 기념시상식 참석(6.12)



- 일시 : 2013. 6. 12(수), 14:00~18:00
- 장소 : 양재동 aT센터 5층 대회의실
- '한국농어민신문사 창간 33주년 기념 시상식'에서 한국비료공업협회가 농수축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

□ 한국비료공업협회 “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 사업” 참여(6.17부터 170일간)

- 일정 : 협약서 체결일('13. 6. 17)부터 170일간
- 고용노동부의 위탁을 받은 “한국산업인력공단”의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사업 중 「비료제조 분야」에 대해 한국비료공업협회가 참여하여 사업을 수행
- ※ 국가직무능력표준이란 산업현장에서 한 사람이 자신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직무능력을 국가차원에서 도출하여 하나의 틀로 표준화한 것

□ 무기질비료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자체 토론회 개최 예정(6.27~28)

- 일시 : 2013. 6. 27(목)~28(금), 1박 2일
- 장소 : 제주대학교 회의실
- 내용 : 각 회원사와 협회가 주제를 정하여 자체적으로 현안사항 등에 대한 토론회 개최
- 참석자 : 정부관계자·농협·신문사 및 각 회원사

□ '13년도 제1차 무기질비료 발전협의회 개최 예정(7.9)

- 일시 : 2013. 7. 9(화), 10:30~13:00
- 장소 : 비료협회 회의실
- 목적 : 무기질비료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여 정부, 비료관련 기관 등 무기질비료 정책에 대한 대응 및 유기적 관계 형성
- 내용 : 무기질비료가격안정기금법에 관한 법률(안), 협회 '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

□ 2013년도 『비료연감』 구매 및 광고계약 요청(8월말)

- 판매가격 : 25,000~30,000원(예상)
* 배송료 별도



- 구매방법 : 협회 홈페이지 구독란 (www.fert-kfia.or.kr), 전화(02-552-2811), 방문(협회 사무실)을 통해 구매 신청 가능
- 광고계약 신청방법 : 협회 홈페이지 광고 신청란, 전화, 방문 접수 가능

7 경제 지표

- 경제성장률 [국내총생산(실질성장률)]
 - ('09) 0.3%→('10) 6.3→('11) 3.6
 - ('12) 2.0→('13 p) 2.6

※ 한국은행 『경제통계분석실』 자료 인용

○ 소비자 물가지수

- 총지수(전월비)
 - : ('13.3)△0.2%→('13.4)△0.1→('13.5) -
- 생활물가지수(전월비)
 - : ('13.3)△0.4%→('13.4)△0.2→('13.5)△0.4

※ 기획재정부 『소비자물가지수』 자료 인용

○ 환율정보 [달러기준 월 평균]

- 4월 : 1,121원/\$, - 5월 : 1,112원/\$
- 6/19 : 1,130원/\$

※ 외환은행 『고시환율』 자료 인용

○ 국제 원자재 가격동향

- 요소(중동)
 - : '12. 12(400\$/톤)→'13.5(365)
- 암모니아(US Gulf)
 - : '12. 12(682\$/톤)→'13.5(540)
- 염화칼륨(벵쿠버)
 - : '12. 12(453\$/톤)→'13.5(435)

※ 『Fertecon』 자료인용, FOB 가격

○ 원자재 통관실적

- 요소 : '12. 12(473\$/톤)→'13.5(462)
- 암모니아 : '12. 12(774\$/톤)→'13.5(628)
- 염화칼륨 : '12. 12(522\$/톤)→'13.5(473)

※ 관세청 『수출입무역통계』 자료 인용

8 정부 및 각 회원사 동정 등

□ 농림축산식품부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

- 친환경농업과 조직개편(3.29)
 - 기획조정실>식품산업정책실>소비과학정책관>친환경농업과
- 농림수산물부→농림축산식품부로 명칭 변경(4.1)
- 인사이동
 - 최희중 식품산업정책실장(前 새누리당 농수산식품위원회 수석전문위원) 발령(4.29)
 - 김완수 친환경농업과장(前 원예산업과장) 발령(5.1)
 - 이정형 농지과장(前 친환경농업과장) 발령(5.1)
 - 백영현 친환경농업과 서기관(前 검역정책과) 발령(5.20)

□ 농촌진흥청 인사이동

- 라승용 농촌진흥청 차장 임명(4.18)
 - 방송통신대 농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농학과 원예학을 전공해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. 1976년 농림부 국립농산물 검사소에서 공직을 시작해 농촌진흥청 농약연구소, 원예시험장을 거쳐 호남농업시험장 연구정책과장, 공공기관지방이전지원단장, 국립축산과학원장, 국립농업과학원장 등을 역임

○ 전해경 국립농업과학원 원장 임명 및 인사이동

- 전해경 국립농업과학원장 임명(4.18) : 이화여대 과학교육학과, 이화여대와 숙명여대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해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. 1984년 농촌영양개선연수원에서 공직을 시작해 농촌생활연구소 가정경영

과장, 농촌자원개발연구소장, 한식세계화 연구단장, 국립식량과학원장 등을 역임

- 이상범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장(前 농업생물부장) 발령(5.13)

□ 농협 행사

- 비료공급자문위원회(4.11)
 - 주최 : 농협중앙회
 - 장소 : 농협중앙회 본관 2층 화상회의실
 - 회의내용 : '13년 맞춤형비료 추경예산 반영 추진, 비료업계 경영현황분석 등 논의

□ 남해화학(주) 인사이동 및 행사

- 인사이동
 - 손중근 영업상무(前 비료사업본부장) 승진(3.22)
 - 최성주 비료사업본부장(前 관리본부장) 승진(3.25)
- 농협대 우수학생에 장학금 전달(4.5)
 - 농업·농촌의 발전을 위해 농협대 우수학생 11명에게 장학금을 전달
- 남해화학 창립 39주년(5.8)
 - 남해화학 강성국 사장은 “국내 최대 비료회사로서 농업인들이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 40년을 향해 남해화학의 실질적 주인인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고 행복을 느끼도록 하는 기업이 되겠다.”고 강조
- 남해화학-무안군 무안양파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(5.14)
 - 남해화학과 전남 무안군 군수(김철주)는 무안 지역의 대표 농산물인 양파의 고품질화를 위해 칼슘과 유허이 함유된 전용비료 개발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함

○ 뉴질랜드에 복합비료 5천톤 첫 수출 달성(6.18)
 - 남해화학은 3년간의 노력 끝에 뉴질랜드 최대 비료회사이자 협동조합회사인 RAVENS DOWN에 복합비료 5천톤을 수출하는 성과를 달성

□ 동부팜한농 인사이동 및 행사

○ 성주 참외농가 영농상담(4.17~19)
 - 경북 성주에서 ‘비료 시비법과 관주재배’를 주제로 130여 참외농가들을 위한 세미나와 1대 1맞춤컨설팅을 진행함

○ 벼 무논점과 동시 측조시비 기술 시연회(5.3)
 - 동부팜한농은 칠원군농업기술센터가 주관한 시연회에서 룡스타 직파전용 비료를 선보임

○ 벼 생력 재배기술 시연회(5.7)
 - 동부팜한농은 경북농업기술원에서 주관한 시연회에서 무인헬기를 활용한 ‘ 룡스타 플러스’ 비료 사용법과 무논점과 시 파종 동시처리기를 사용한 ‘ 룡스타 직파전용’ 비료 사용법을 소개함

○ 골프장 전용 농자재 세미나(5.7)
 - 제주에서 ‘골프장 잔디 전용 작물보호제·비료’를 주제로 골프장 관리 담당자들을 초청한 세미나에서 잔디의 분류와 특성, 잡초방제법, 비료시비법 등을 소개함

○ 조직개편(6.10)
 - 국내 영업을 총괄하는 영업담당을 신설하여 현장 영업을 활성화하고 종합연구소를 새로 만들어 연구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조직개편을 단행함

○ 인사이동(6.10)
 - 김광철 상무[비료사업부장 (前 사업기획팀장)] 승진(6.10)
 - 전재현 상무[영업담당 (前 영업관리팀장)] 발령(6.10)
 - 최문근 종합연구소장(前 부사장) 발령(6.10)

○ 동부팜한농 창립 60주년(5.31)

- 동부팜한농 최석원 사장은 “한 갑자를 돌아 새로운 출발선에 선 만큼 겸손한 자세로 새롭게 도약하는 전기를 만들자.”고 강조

□ (주)카프로 인사이동

○ 이병주 상무이사(前이사) 승진(4.15)

9 기타동향

□ 한국토양비료학회 춘계학술발표회



○ 일시 : 2013. 5. 23(목)~24(금) 1박 2일
 ○ 장소 :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동관 오정강당
 ○ 내용 : 제45회 정기총회, 춘계학술발표회
 ○ 학술발표회를 통해 토양 관리·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농산업에 기여하는 토양의 중요성을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함